

초등 저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

Changes of Work-Childrearing Conflict amo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Growth Curve Model

박정민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), 김유진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), 진미정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)

연구목적

-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취업모에게 자녀의 취학은 중요한 생애사건
 - 가족이 자녀학령기로 전이하며, 부모는 ‘학부모’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교육에 대한 긴장과 어려움을 더 자주 경험함
 - 특히, 초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정규 수업 시간은 1학년과 동일함에도 1학년 시기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나 혜택은 받기 어려우며,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부모가 많음(박새롬 외, 2020)
 - 자녀가 초등학생인 시기 부모는 일과 자녀교육 사이에 부담을 오롯이 경험하며,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
 -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의 변화 양상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함
- 연구목적: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, 개인, 자녀 학교생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
- [연구문제 1]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?
- [연구문제 2]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의 변화에 어머니의 직장요인, 어머니의 개인 요인, 자녀의 학교생활 요인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
연구방법

-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
 -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학부모교육참여패널
 - 초등 자녀 어머니 코호트 3차(2018년)~5차(2020년) 취업모 262명
- 측정도구
 - 일-자녀교육 갈등 (종속변수)
Cinamion&Rich(2002), 유성경 외(2012)의 일-가족 갈등 척도 14문항
 - 직장 요인 (조절변수)
 - 어머니의 근로시간: 연속변수로 조사된 주당 평균 근로시간
 - 육아휴직 여부: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, 그렇지 않은 경우 0
 - 개인 요인 (조절변수)
 - 양육역량: 정계숙&최은실(2013), 정계숙 외(2016)의 척도 27문항
 - 부모-자녀 동일시 수준: 심미옥(2003)의 척도 4개 문항
 - 자녀의 학교생활 요인 (조절변수)
 - 학교생활 파악: ‘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(2013)’ 중 어머니의 학교생활 파악 수준 3문항
 - 학교생활 적응: 위와 같은 연구에서 자녀 학교생활 적응 수준 3문항
- 자료 분석 방법
 - 다층 성장모형(Muliti-level Growth Model)을 활용
 - 1) 종속변수의 변화를 추정
 - 2) 조절변수 투입하여 종속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영향요인 검증

연구결과

	Model 1 B(SE)	Model 2 B(SE)
고정효과		
초기값	2.79(0.05)***	3.11(0.61)***
× 직장: 근로시간		0.02(0.004)***
× 직장: 육아휴직		0.32(0.20)
× 개인: 양육역량		-0.27(0.12)**
× 개인: 동일시		0.25(0.07)***
× 학교생활: 파악		-0.09(0.10)
× 학교생활: 적응		-0.12(0.11)
변화율	-0.15(0.04)***	0.76(0.41)†
× 직장: 근로시간		-0.01(0.003)***
× 직장: 육아휴직		0.16(0.19)
× 개인: 양육역량		-0.09(0.09)
× 개인: 동일시		-0.06(0.05)
× 학교생활: 파악		0.13(0.08)
× 학교생활: 적응		-0.14(0.08)†
임의효과		
초기값 분산	0.36(0.07)***	0.23(0.05)***
변화율 분산	0.07(0.03)*	0.04(0.03)
잔차 분산	0.24(0.04)***	0.23(0.03)***
-2 Log-likelihood	1019.116	958.909
†<.10 *p<.05, **p<.01, ***p<.001		

논의 및 결론

- [연구문제 1] 취업모가 겪는 일-자녀교육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취업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 초등 저학년 시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큰 시기이나,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이 적응의 양상을 보이므로 이 시기의 취업모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.
- [연구문제 2]
 - 어머니 직장 요인: 취업모의 근로시간은 높은 일-자녀교육 갈등의 초기값과 정적으로 관련되지만, 시간에 따른 일-자녀교육 갈등을 오히려 감소시킴. 근로시간이 긴 취업모가 일-가정 갈등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갈등을 완화하고 대처할 전략을 수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 따라서 취업모가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직장 차원의 지원과, 짧은 정규 수업시간 가운데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에 질적 제고 또한 필요함을 시사.
 - 어머니 개인 요인: 높은 양육역량과 낮은 부모-자녀 동일시 정도는 일-자녀교육 갈등의 초기값과 부적인 관련을 나타냄. 자녀의 정서에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지만 그 가운데 높은 일-자녀교육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(송영주 외, 2014), 취업모가 부모교육을 통해 적절한 양육역량을 획득하고, 자녀와의 동일시를 과도한 개입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해야 함.
 - 자녀 학교생활 요인: 자녀의 높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남. 취업모의 초등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.

키워드 : 취업모, 초등 저학년 자녀, 일-자녀교육 갈등, 다층성장모형